

수그러졌던 결핵 다시 살아난다

(3) 중국보건당국 결핵퇴치 총력전

TB

Return of a
Killer Disease

How to Fight It

중국보건부는 1992년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으로부터 5천 5백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받아약품, 진단기구, 의료요원 훈련비로 배정하여, 현재 결핵발병률 10만명당 156명을 2000년대에는 70명 수준으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의료관계자의 관심밖에 살고 있으며, 불규칙적인 투약으로 내성결핵환자가 늘고 있어서 중국정부는 결핵퇴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성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 년 북경의 퇴직 교수인 정 슈민(67)은 기침이 좀처럼 멈추지 않을 때도 그저 감기려니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한달간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다. 정은 북경으로 돌아오자마자 병원에서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6개월 후 결핵은 치유됐다. 그는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중국에서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수는 아직도 연간 약 20만명.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이다. 중국 농촌지역에서는 「결핵에 걸리면 열 명 중 아홉은 죽는다」고들 말한다.

이제 중국 당국은 그런 말이 틀린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 중국 보건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지도와 세계은행으로부터 5천5백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받아 결핵 발병률을 현재의 10만명당 1백56명에서 2000년에는 70명으로 줄인다는 야심찬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세계은행 원조금은 대부분 약품·진단기구 그리고 의료요원 훈련비로 배정되지만 각 성(省)정부들은 그에 상응하는 기금을 추가로 내놓아 부분적으로 농촌지역 의사들의 협조를 얻는데

The Facts About Tuberculosis

PREVALENCE: A third of the world's population carries the TB bacillus. But among healthy carriers, only 10 percent develop the disease.

CONTAGION: Asymptomatic carriers are not contagious.

from the Dutch go get rid of thiacet some experts believe wave of drug-combination is just around "I think the priva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몇년 안에 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전체중국 인구의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농민들은 수십년간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 왔으나 70년대 말 농업개혁 이후부터는 돈을 내야 했다. 그렇게 되자 많은 결핵 환자들은 증세가 일시적으로 사라지자마자 비싼 약의 복용을 중단했다.

각 보건소에 재정문제는 자체 해결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일부 보건소는 편법을 동원했다. 예컨대 결핵을 제대로 치료하자면 네 가지 약이 필요한데 한가지 약만 처방하는 식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농촌 지역이 복합 약품 내성결핵(MDRTB)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부 역학자 치엔 위엔푸의 추산에 따르면 이미 리팜피신이라는 결핵약에 내성을 갖고 있는 중국의 결핵 환자만도 전체 결핵환자의 30%나 된다.

많은 지역에서 중도에 약의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듯하다. 북경 서남쪽 1백 km지점의 가난한 산골 마을에 사는 웨이 이다오(32)는 '89년부터 결핵을 앓아 왔다. 그는 어쩌다 한번씩 리팜피신을 복용한다. 그러나 한병에 3.75달러(한화 3천원)나 하는 약값을 계속 낼 수가 없다.

웨이 가족의 1년 수입은 고작 2백 40달

리(한화 19만원) 『얼마 동안 약을 먹고 좀 나아질 만하면 복용을 중단한다』고 그의 마을 의사 장 수구이는 말한다. 그러는 동안 웨이의 병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고 있다. 그의 모친(62)은 6개월 전 결핵에 걸렸는데 살아 남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다.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관계자들의 관심권 밖에서 살고 있다. 매년 수십만명의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는데 정해진 주거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붙잡히는 것이 두려워 결핵 치료를 위한 등록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치료과정을 살펴보기도 어렵다.』북경의 어느 의사 말이다.

이같은 사정은 주민 대부분이 유목생활을 하는 티베트나 내몽고에서는 특히 심하다. 지금까지 WHO와 세계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손쉬운 지역에 한정된 이야기다. 제반 사회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얻은 성과인 것이다. 『우리는 결핵은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고 WHO결핵 담당부서의 임원인 리처드 범가너는 말한다.

아마 가능한 일일 것이다. 단 중국 정부가 농촌지역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말이다. †